

AN ALIYAH FLIGHT THAT SAVED A LIFE

생명을 구한 알리야 항공편

Help ICEJ fill another Aliyah 'evacuation flight'

ICEJ 가 다른 알리야(Aliyah) '피난 항공편'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By: Anastasiya Gooding, 아나타시야 구딩 기자

Posted on: 9 Jul 2020, 2020 년 7 월 9 일



Israel has always been open to Jews wanting to return home, even during the Corona crisis, although it does take time to document one's Jewish heritage. But for one Russian Jewish family who arrived last week, there was no time to waste. Their seven year-old son was battling lymphatic cancer and needed life-saving treatments in Israel. So they were fast-tracked for citizenship in only one week's time, and the young boy arrived on June 30th on a rescue flight sponsored by the International Christian Embassy Jerusalem. His story is one of a miracle still in the making.

유대인이 고토로 돌아와야 한다는 유대인 유산을 기록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귀국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과 같은 코로나 위기에도 그 문은 열려있었습니다. 지난 주에 도착한 한

러시아 유대인 가족에게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7살 된 아들은 림프종과 싸우고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1주일 만에 시민권을 얻기 위한 빠른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어린 소년은 6월 30일에 국제기독교예루살렘대사관이 후원하는 구조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귀환사업 과정에서 기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Since late February, the ICEJ has managed to bring over 1,100 Jewish immigrants home to Israel on Aliyah flights arranged by the Jewish Agency. With most global travel halted, these “evacuation flights” are allowed to bring new immigrants already approved for Israeli citizenship. Those on board are being given priority due to urgent health concerns, rising antisemitism, and poor socio-economic conditions. For the Zheleznyak family, their situation indeed was desperate.

2월 말부터 ICEJ는 1,100명 이상의 유대인 이민자들을 유대기관이 마련한 알리야(Aliyah) 항공편으로 이스라엘로 데려 왔습니다. 대부분의 전 세계 여행이 중단되었지만 이 “피난 비행”은 이미 이스라엘 시민권을 위해 승인된 새로운 이민자들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긴급한 건강 문제로 인하여, 반유대주의의 증가와 빈곤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있었지만 이들 탑승자들은 우선권을 받고 있었습니다. 젤레즈냐크(Zheleznyak) 가족에게는 상황이 실로 절박했습니다.



Their troubles began some 18 months ago when Boris Zheleznyak and his wife learned their son Maxim had acute leukemia. “Still, the local doctors said that there was nothing to worry about, there was a 95% chance of success,” Boris told Israeli media this week.

그들의 문제는 약 18개월 전에 보리스 젤레즈냐크(Boris Zheleznyak)와 그의 아내가 아들 막심(Maxim)이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리스는 “아직도 지역 의사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성공 확률은 95%였다” 고 이번 주에 이스라엘 언론에 말했습니다.

Maxim began treatment in one of Russia’s best hospitals, and his parents devoted all their strength to caring for him, as his mother even left her work.

“Many now complain about how difficult it is to get through quarantine. For our family it has been going on for a year and a half. In order not to bring infection into the house, we refused to meet with relatives and friends. Our whole life was divided between the house and the hospital,” said Boris.

막심(Maxim)은 러시아 최고의 병원 중 한 곳에서 치료를 시작했으며, 그의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며 그를 돌보는 데 부부는 모든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역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1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집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친척이나 친구들과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집과 병원으로 나뉘었습니다”라고 보리스(Boris)는 말합니다.

Like many cancer patients, brief signs of improvement in Maxim’s condition gave way to setbacks and long days of despair, which were only worsened by the COVID-19 pandemic. When recent test results showed a return of the cancer, they started searching for more aggressive treatments, such as a bone marrow transplant. It soon became obvious that the answer could only be found abroad.

막심(Maxim)의 짧은 호전된 증상은 COVID-19 전염병으로 악화된 절망과 오랜 절망의 길에서 희망의 길이, 많은 암 환자와 마찬가지로,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검사결과 암이 호전되는 결과가 보여지고 있어서 골수 이식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치료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은 해외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Then a friend told them about another Jewish family who were in a similar situation. They had made Aliyah to Israel and were now receiving treatments at the Schneider Children’s Hospital, in Petah Tikvah. So on June 20, Boris wrote a letter to the Jewish Agency with a desperate plea: Let us enter Israel to save our son.

그런 후 한 친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유대인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알리야(Aliyah)로 그들의 아이를 이스라엘로 데려왔고 현재 페타 티크바(Petah Tikvah)의 슈나이더 어린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보리스는 유대인 기관에 필사적으로 탄원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들어 가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Boris was not so optimistic. But the next day he received a call from the local Jewish Agency representative, who said: “We Israelis never leave children without help.” He then did everything possible to ensure the Zheleznyak family’s paperwork was quickly completed in both Israel and Russia.

보리스는 그렇게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는 현지 유대인 기관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 이스라엘은 결코 우리 아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젤레즈냐크(Zheleznyak)가족의 서류 작업이 이스라엘과 러시아에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Miraculously, in just four days, the anxious family had received their passports, and four days later they were on a flight bound for Tel Aviv sponsored by the Christian Embassy.

When the Zheleznyak family landed on June 30, they were met at the airport by Jewish Agency staff. Maxim and his parents were taken through the “green corridor,” and presented with official documents for new arrivals and even medical insurance.

기적적으로 단 4 일 만에, 불안했던 가족은 여권을 받았으며 4 일 후 기독교 대사관이 후원하는 텔아비브 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젤레즈냐크(Zheleznyak)가족이 6 월 30 일에 착륙했을 때, 그들은 유대인 기관 직원을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막심(Maxim)과 그의 부모는 ‘녹색 복도’를 통해 처음으로 입국장에 도착하였고 의료 보험에 대한 공식문서를 제출했습니다.

“When will the insurance become active?” – the parents asked nervously. “Like all olim, from the very moment you receive it,” they were told.

The Zheleznyak family still do not believe they are already in Israel, it has all happened so fast.

"보험은 언제 효력이 발생되니까?" - 부모들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는 순간부터 모든 유대인 이주자(olim)처럼 될 것입니다"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젤레즈냐크(Zheleznyak)가족은 여전히 그들이 이미 이스라엘에 있다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On June 16, we received dramatic test results that Maxim's cancer has gotten worse, and two weeks later we landed at Ben Gurion airport," Boris explained. "This is a real miracle, because we did not even have passports for international travel... No country in the world would ever grant us citizenship this way, in a matter of days."

"For the first time after a year and a half of a desperate struggle for the life of our son, we have hope for salvation," Boris concluded.

보리스(Boris)는 말하기를 "6월 16일 막심(Maxim)의 암이 악화되었다는 위험한 시험결과를 받았으며 그런 후 2주만에 벵구리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그때만해도 우리가 국제 여행을 위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며칠 만에 이런 방법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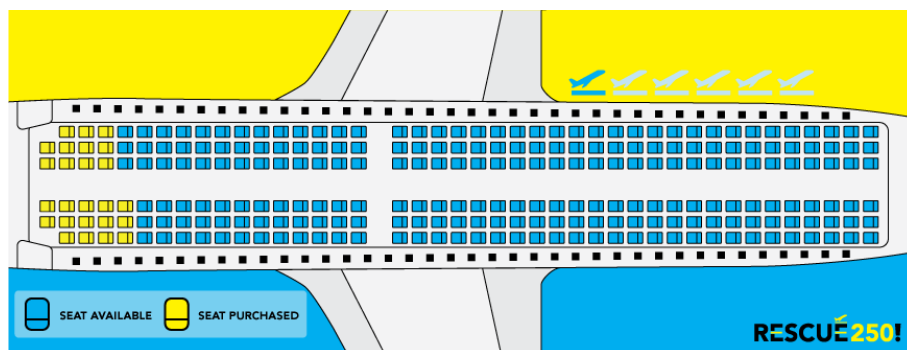
보리스는 말하기를 "1년반 만에 아들의 삶에 대한 절박한 투쟁에서 처음으로 구원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Facing a life-threatening disease, amid a global pandemic, with nearly all flights cancelled, and normally staring at months and months of immigration paperwork, the Zheleznyak family is truly in the midst of a miracle. But now they need our continued prayers, that young Maxim will finally beat cancer and grow up healthy and happy in Israel.

거의 모든 비행이 취소되고, 일반적으로 이민 서류를 꾸미는데 몇 달씩 걸리며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직면한 젤레즈냐크(Zheleznyak)가족은 이제 진정 기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계속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어린 막심이 마침내 암을 이겨 이스라엘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There are also many more Jewish families intensely longing to reach Israel amid the Corona crisis. Thanks to Christian donors around the world, the ICEJ has managed to bring over 1,100 Jewish immigrants home to Israel on Aliyah flights so far this year. That is a remarkable rate of some 250 olim (newcomers) per month even during the Corona shutdowns.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갈망하는 유대인 가족이 더 많습니다. 전세계 기독교 기부자들 때문에 ICEJ는 올해까지 알리야(Aliyah) 항공편으로 1,100명 이상의 유대인이민자(olim)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위기가운데에서도 매달 새로운 250명의 유대인귀국자가 발생하는 기록적인 기록입니다.



With all the economic instability and rising antisemitism worldwide, we are now challenging our friends and supporters to help us maintain that pace in the critical months ahead, when Aliyah is expected to increase. Please join our 'Rescue250' campaign! Help us to fly another 250 Jews to Israel in the month of July.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적 불안정과 반유대주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알리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250명 구출작전('Rescue250' campaign)에 참여해 주십시오! 7월 한달 동안 250명의 다른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실어 날라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Book a seat today at: on.icej.org/rescue250

오늘 좌석을 예약해 주십시오: on.icej.org/rescue250

한국 국제기독교예루살렘대사관

Korea International Christian Embassy Jerusalem

Rm703, Acetechnotower, 15, Seonyu-ro 33-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07271

F: +82-2-2636-4753

M: +82-10-2079-3073

E: tcjjesus@gmail.com

H: www.tcj.kr

Facebook: ICEJ KOREA

YouTube: ICEJ KOREA

